

포천신도시 150만평 확정

자족기능 갖춘 복합형 명품도시로 건설



600년에 한번 돌아온다는 슈퍼대지 해인 정해년 태양이 밝아 올랐다. 포천시 군내면 일원에 150만평 규모의 포천신도시가 2013년까지 건설된다.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선출직 오피니언 리더들간의 화합과 노력은 물론 공익을 우선시하는 시민의식이 제고되어야 한다.(포천시 전경)

포천시 군내면 일원에 150만평 규모로 오는 2015년까지 자족기능을 갖춘 복합형 신도시로 건설된다.

28일 포천시 관계자에 의하면 포천신도시 150만평 건설 내용이 포함된 '2020년 포천도시기본계획(안)'을 지난 4일 건설교통부가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포천시는 오는 2007년 상반기부터 2015년까지 총 3조2천500억원을 투입해 인구 6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2만 2천여가구의 아파트를 건설할 계획이다.

포천시는 이를 위해 2007년 상반기에 토지공사 혹은 주택공사 등 공동사업 시행자를 선정하고 사업 예정부지를 구체적으로 확정된 후 2008년 상반기까지 택지지구 지정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포천시는 신도시 건설예정 부지에 시청사를 비롯한 행정중심타운 조성 방안도 검토중에 있다.

신도시가 자족기능을 갖추기 위해 포천시는 영북면 일대에 개발 예정인 산업단지 및 산정호수, 백운계곡 등을 축으로 하는 관광개발사업, 대진테크노파크 조

성사업, 화현구단지 조성 등 산업기반 시설을 연계해 신도시를 개발할 방침이다.

또 포천시는 서울-포천간 민자고속도로, 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43번 국도 우회도로 건설, 의정부-포천간 BRT노선 구축 등을 통해 신도시 교통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포천신도시는 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된 내용으로 전국 최초로 지방자치단체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했

다"면서 "당초 350만평 규모로 신도시를 개발하려고 했지만 건설교통부 승인 과정에서 150만평으로 축소됐다"고 말했다.

또 그는 "포천신도시 건설은 기존 택지개발 방식과는 다른 명품 도시로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면서 "신도시 규모가 일단 150만평 규모로 승인된 만큼 경기도나 건설교통부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명품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승환 기자 form65@paran.com

社 告

불우이웃돕기 창구

본지는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이 되고자 불우이웃돕기 창구를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우이웃돕기 운동에 참여를 희망하는 분들은 직접 성금을 본지에 접수하거나 아래 계좌로 이체하면 됩니다. 또 매월 정기적으로 도움을 주고자 하시는 분들은 자동이체를 신청하셔도 됩니다.

2006년 12월 20일부터 12월 28일까지 '포천신문 불우이웃돕기 창구'에 성금을 기탁하신 고마운 분들을 아래와 같이 밝히는 것은 고마움을 기록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금을 불우이웃돕기 통장으로 계좌 입금하신 분들은 아래 문의전화로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물품을 접수하고자 하는 분들도 미리 전화로 연락해 주시면 처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상황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안타까운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시는 분들의 많은 동참으로 서로 나누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성금 및 물품접수내역

김수동	삼우석재 회장	200,000원(자동이체)
권경화	청정봉어림 대표	30,000원(자동이체)
신형숙	주부명예기자단 총무	20,000원(자동이체)
임경순	주부명예기자단 단장	30,000원(자동이체)
고남석	포천제일사우나	500,000원(매월 정기이체)

불우이웃돕기 문의 031-542-1507

계좌: 농협 585-01-015241 (주)한국정보, 포천신문



정해년 이야기

붉은 돼지의 해

수필가 김창중(본지 지문위원)

새해(정해년 丁亥)는 돼지해 중 최고의 해인 '붉은돼지' 해로 600년만에 찾아오는 재운(財運)을 상징하는 해이다. (황금돼지 해 라는 중국인들의 견해는 사실과 다르다)

활활 타오르는 기운이 있어 그 기운이 넘쳐 번성하는 해이다. 역사적으로 여러 기록이 있다. 신라말 최고의 문장가이자 유학자이며 천재였던 고운(孤雲) 최치원(崔致遠) 선생도 '황금돼지'의 소생이란 설이 있다. '삼국사기'와 '고려사'에는 고구려의 수도 국내성과 송악을 돼지의 도움으로 점지했다는 설이 있으며 고구려 산상왕은 돼지의 도움으로 아들을 낳았다는 설이 있다. 신통력을 지닌 돼지는 신의 뜻을 전하는 사자(使者)로 나온다. 또 다산(多産)과 풍요의 상징이며 꿈속 돼지는 재물 황재수에 해당된다.

돼지는 덕성(德性), 야성(野性)을 함께 지닌 동물이다. 「정(丁:달빛, 불빛) 해(亥:돼지띠)로 열정 밝음의 해」를 신년에 예상할 수 있다. 돼지띠의 사주(四柱)는 천수성(天壽星)으로 오래 건강하게 살며 넉넉한 운수이다. 인물로는 이승만 전대통령, 양드래 김, 이회창 전총리, 금난새, 손학규 전지사, 김근태 당의장, 김홍신 소설가, 가수 김홍국, 유시민 장관, 전여욱 의원, 고현정, 윤도현, 신동엽, 남희석씨 돼지띠이다.

포천인으로는 포천양조장 윤환모, 조관형 보령계리인 협회장, 前수협 부회장 이일훈, 전 도의원 전문위원 임두빈, 수출입은행 前상무 조병익, (주)삼신기전 사장 양홍식, 이구산 前포천중고교장,在美북사 주안식 등이 돼지띠이다.

新·年·揮·毫

江流石不轉(강류석부전)



양 주 승
본지 지문위원

강물은 흘러도 그 안의 돌은 물결 따라 이리저리 구르지 않는다. 제갈공명(諸葛孔明)의 팔진도(八陣圖: 중군(中軍)을 가운데에 두고 전후좌우에 각각 여덟 가지 모양으로 진을 친 진법(陣法)의 그림) 중에 있는 말로 '밭부로 움직이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선 택 2007

빅토르 안드리오비치 유센코 우크라이나 대통령 (주)꽃샘종합식품 방문



◀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주)꽃샘종합식품을 방문하여 전시된 양봉기술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 12월 19일 (주)꽃샘종합식품을 방문한 우크라이나 대통령 일행과 기념촬영.